나와 현대불교

신행 밑거름…일주일 내내 탐독

김기옥〈前 서울 대신초등교사〉

"현대불교신문은 내 공부자료입니다."

서울 대신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 8월31일자로 42년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김기옥교사(62세, 불명 春珏)는 현대불교신문을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읽는 독자다. 그러다보면 평균 2~3회는 읽게된다. 창간독자로 그렇게 4년을 생활해왔다.

"집에 신문이 도착하면 학교로 들고가서 교실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방과후나 쉬는시간에 꼼꼼히 읽습니다. 한번 읽어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처음 읽을 때와 다시 읽을 때 세번 읽을 때가 마음작용이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싶은것'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글들을 만날 때는 '아, 또 배웠구나' 싶어 환희심이 생기니까요.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마음공부를 하는거지요."

이렇게 손때가 묻은 현대불교신문은 1주일후 새 신문이 도착하면 김교사의 부군(여의도고교 교사)에게 넘겨진다. 부군은 구문을 읽는 셈.

김교사는 현대불교신문에서 기획하는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맹렬독자다. 심지어 부다피아어린이캠프에는 손주들을 보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불교를 강요하거나 내가 신자임을 무리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선생님은 현대불교신문을 늘 읽으시는분'으로 떠올리더라구요."

이런일도 있었다. 옆반 교실에서 불자학생들과 기독교학생간에 종교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쟁점은 "우리 대한민국 4천만 인구가 모두 부처님이 된다"라는 불자학생의 주장에 아니라는 반박이 오고간 것. 늘 현대불교신문을 곁에두고 생활하는 김교사의 이미지 때문인지 그 어린이들은 김교사에게 확인받겠다며 몰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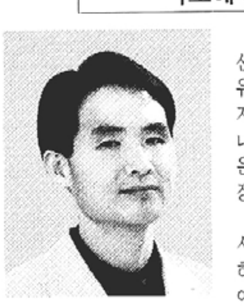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기때문에 4천만 모두 부처님이라 해도 된다"는 김교사의 설명에 논쟁은 일단락지어졌다고 한다.

김교사가 스크랩하면서 가장 열심히 읽는 란은 연재물 '길을 묻는이에게'와 6개월여 연재됐던 김종서박사의 '불교와 교육'. 아이들에게 좀더 젊은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명퇴를 결심했다는 김교사는 이제는 집에서 지난 신문까지 점검하며 읽게 됐다며 웃는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옥중서 만난 수행의 등불

박노해〈시인〉



"옥중생활 8년동안 교계 신문을 모두 받아보았는데, 유일하게 현대불교신문은 지면 전체를 샅샅이 읽었습니다. 특히 두 쪽에 이어실은 '큰스님 수행한담'을 가장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시인 박노해씨는 옥중에서 불교사상과 불서에 심취해 있었다며 현대불교신문 애독자임을 밝혔다. 생활불교를 지향한 지면구성과 다양한 기사포멧 등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문을 접하게 한다는 것.

교계 신문들이 옥중으로 전달돼 접할 수 있게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박시인은 짧지 않은 8년의 시간에 불교관련 서적을 다독했다고한다. 그래서 '선림고경총서' 시리즈와 성철스님 법어집 10권에 빠져 열심히 읽었다고 전했다.

70년대 함석헌·문익환옹을 따라다니던 시절 법정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교에 호감을 갖게 됐다는 박시인은 "진정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전통성이 확보된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된다"며 "그것은 정신적으로 불교가 움직일 때 가능하다"고 피력한다.

위영란 기자

"맘놓고 권할수 있는 신문"

이경희〈대불청 여성국장〉

"지난 3년간 책상 한 켠을 차지해 온 현대불교신문 스크랩 철은 마음 공부와 자비행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여성국장 이경희씨(33)는 현대불교신문이 수행과 신행의 지침서라고 말했다.

이씨가 신문의 스크랩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상법석'을 읽고부터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선지식들을 지면으로 뵙고 그들의 맑고 향기로운 깨달음의 법문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상법석'"이라는 설명이다.

'길을 묻는 이에게'는 이씨의 포교 방편이기도 하다. 그녀에게는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날 그 친구가 책상 모퉁이에 밀어놓은 스크랩 뭉치를 우연히 읽게 됐다. 그때 친구는 "네가 혼자 살면서 그렇게 밝을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며 신심 두터운 불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후에 이경희씨는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권할 수 있는 신문으로 현대불교신문을 꼽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송광사 민족문화교육관 짓는다

'출재가 교육도량' 21일 기공…2천여명 수용규모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에 출·재가불자들의 교육과 수행을 위한 대규모 수련원이 건립된다.

21일 기공식을 갖는 송광사 수련원인 민족문화교육관은 효봉영각 앞에 총 4개동으로 건립된다. 송광사는 1차적으로 금년말까지 9백여평의 대지에 6억3백여만원을 예산을 들어 금년말까지 연건평 74평의 1동을 완공할 예정이다.

송광사는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족문화교육관이 완공되면 거종단적 집체교육(행자교육, 비구계교육 등), 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 스님들의 집단교육, 춘계 보조국사 종재, 추계 효봉종사 추모법회 등 각종 대형법회, 재가불가 수련회 등 출·재가 불자들의 교육과 수련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사측은 "그동안 수련장이 없어 재가불자들의 단기수련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치 못해 안타까웠다"며 "수련원이 건립되면 연중무휴로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사 수련원이 완공되면 그동안 시설미비로 매년 하계수련회에 참석치 못한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교의 원융무애정신과 지역 개발전문가의 식견을 활용 제주발전을 이루기위한 협의기구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이 9월29일 발족됐다.

제주불교 사회문화원 개원

인재양성·도정 발전과제등 실천

21세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교계가 앞장섰다.

제주지역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불교사회문화원(원장 시몽스님) 개원식이 9월29일 칼호텔 2층 소회의실에서 중원스님(관음사주지)을 비롯한 지역스님과 김태환 제주시장 양중해 제주문화원장 등 지역인사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 회장 중원스님은 "불교의 원융무애정신이 이 사회에 필요한 때이다"며 "경륜과 식견을 가진 지역 중견인사들이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발전방안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교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개원식에서 시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을 발전시켜 제주도민에게 용기와 신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앞으로 △연2회 제주불교사회발전 토론회 △지역사회원로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화모임 △제주발전을 위한 제안및 도민홍보 △제주발전과제 실천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개원과 함께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충고의 제안을 듣고 있다. 문의 제주시 이도1동 관음사중앙포교당 4층. (064)758-2118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원명선원 훼불전시관 건립

18일 발원법회…불상등 국내 모든 자료 소장

각종 훼불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훼불전시관이 교계 최초로 건립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훼불사건이 발생한 제주 원명선원(회주 대효)은 최근 훼불전시관(가칭)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명선원이 추진중인 훼불전시관은 규모, 시기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경내에 건립, 훼불성지로 조성한다는 것. 이 훼불전시관에는 최근 발생한 각종 훼불사건에서부터 1천6백여년 동안의 모든 훼불사건에 대한 자료를 총망라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시될 자료은 훼불사건 일지, 사진및 신문자료, 파괴된 불상 등이다.

이를위해 원명선원은 지난 6월 26일 발생한 훼불로 파괴된 불상 공개 및 복원발원 법회를 18일 봉행한다. 이날 공개될 불상은 훼불사건으로 파괴된 관세음보살상 1구, 석가모니부처님상 1구를 비롯 천불가운데 7백50여구의 불상이다. 이 불상들은 훼불전시관이 건립될 때까지 법당 한켠에 임시로 마련된 전시관에 보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원명선원은 이날 법회후에는 훼불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자료조사 등 구체적인 불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성철스님 생가 2001년 복원

유품전시관도 건립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기고 93년 열반한 성철스님 생가(조감도)가 2천1년까지 복원된다.

9월 19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생가터에서 백련문도회스님을 비롯하여 불필스님(금강재단이사장)과 기관장 등 내외인사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철스님 생가 복원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에 착공된 성철스님 생가는 정부보조금 7억원으로 총면적 2천5백여평에 생가(50평) 안채 사랑채 외삼문 등이 건립된다.

이와함께 성철스님 기념사업회인 금강재단과 해인사 백련불교문화재단은 30여억원을 투입해 생가옆에 유품전시관과 사찰을 건립키로해

불자들의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원우 기자

남구복지관 위탁운영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스님)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권자로 9월30일 확정됐다.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남구종합복지관은 연건평7백22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이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저소득층지원 △지역복지시설과의 연계 △지역공동체의식함양 등을 통해 열린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교사회복지회는 7일자로 남구자활지원센터로 지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장성 묘현사 묘련스님

한국의 대표적인 법화행자로서 평생을 〈법화경〉 수행에 매진해 온 묘련스님(묘현사 주지)이 5일 새벽 4시40분 입적. 세수 74, 법랍 52세. 영결식과 다비식은 9일 오전10시 전남 장성 묘현사에서 엄수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주불교 총람 발간"

원장 시몽스님 인터뷰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현주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불교계가 인재양성등 제주발전방안 수립에 나서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교법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을 만들겠다는 초대원장 시몽스님(서귀포 법화사주지).

이를 위해 시몽스님은 첫행사로 11월경 미래의 제주도를 지향하는 언론계와 연계하여 지상좌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의식 개혁을 위해 젊은스님과 경륜과 식견 그리고 각 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함께 제주의 미래를 위해 격의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미비한 제주불교사를 정립키위해 제주불교총람을 발간하고 지역 장례문화 개선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연담·백파 문도 총회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연백문도회는 역사적으로 종지종풍을 선양하는 선지식을 많이 모셔왔고 그후로도 화합 단결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문도의 규약이 없어 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9월 29일 선운사에서 여러 중진스님이 모여 문장스님과 원로스님, 지도위원 스님을 추대하고 회장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후 10월 7일 봉선사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문도 규약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문장스님을 모시고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앙원합니다.

■ 일 시 ; 1998년 10월 19일 오후 1시
■ 장 소 : 장성 백양사

⊙ 문 장 : 서옹 대종사
⊙ 원로위원 : 운경, 수산, 천운, 청화, 철웅, 월운, 정천, 동성, 우암, 재덕
⊙ 지도위원 : 지승, 혜성, 암도, 현성, 학능, 호월, 재곤, 재훈, 백운, 인담, 일장, 일면, 도형, 월성, 원응, 대우, 선파, 보안, 태연, 지향, 정허, 태정, 자응, 다정, 성오, 선결, 혜정
(현재파악이 안되신 스님과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 장 : 밀운(봉선사 주지)
⊙ 부 회 장 : 혜산(선운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 현근(조계사 주지), 보선(대흥사 주지), 동광(도선사 주지)
⊙ 사무처장 : 화범 (봉선사 부주지)
⊙ 간 사 장 : 법현(선운사), 혜자(도선사), 화암(봉선사), 선광(조계사), 토진(백양사) 〈무순〉

연백문도회 회장 봉선사 주지 밀운 합장

문의 : 백양사 0685)392-7502 / 봉선사 0346)555-5974